

LG생활건강, 일본 기능성식품 인수

에버라이프 지분 100% 인수계약 체결 ... 일본시장 정착 교두보 마련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일본의 기능성식품 통신판매기업인 에버라이프(Everlife)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월17일 발표했다.

인수가격은 약 33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매출액 3080억원이 예상되는 에버라이프는 건강기능식품과 미용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통신판매기업으로, 산토리(Suntory)와 DHC에 이어 일본 미용식품 3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화장품기업 긴자스테파니(Ginza Stefany)에 이어 에버라이프를 인수함에 따라 화장품 뿐만 아니라 <이너 뷰티> 부문까지 일본 현지사업을 확대하게 됐으며 LG생활건강 브랜드의 현지 정착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LG생활건강은 평가했다.

LG생활건강은 “일본 시장은 자국 브랜드가 강해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성공하기 대단히 어려웠다”며 “에버라이프와 긴자스테파니의 사업협력을 통해 일본 화장품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일본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 에버라이프제품을 한국은 물론 중국, 베트남, 타이완, 싱가포르 등 주요 해외 거점에 유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17>